

새정치 광주시당, '5 대 5' 공심·재심위 구성... 민주-安 세대결 예고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추천관리위원회 명단

구분	성명	경력	추천
위원장	임내현	시장위원장(국회의원/복음)	민주당
위원	강기정	국회의원(복음)	민주당
	김동철	국회의원(광산갑)	민주당
	박해자	국회의원(서갑)	민주당
	장병완	국회의원(남구)	민주당
	지미경	변호사	민주당
	이진	사무처장	민주당
	김미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새정치
	김학봉	(사)인재육성아카데미 이사	새정치
	노미덕	장애우권익문제이사장	새정치
	송태중	前 시의원	새정치
신인식	前 시의원	새정치	
이현철	(주)프라이개발대표이사	새정치	
허달용	前 광주인예총 회장, 화가	새정치	
김경신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공동추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추천재심위원회 명단

위원	이해명	누리문화재단 이사장	새정치
위원	김덕은	변호사	민주당
	국중돈	前 광주변호사 회장	민주당
	송희성	법학박사	민주당
	이경호	민주당 부감 청년위원장	민주당
	김석순	식생활교육광주지역대표	새정치
	염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재단 공동대표	새정치
	피델인	사무처장	새정치
	서정호	광주NGO센터장	공동추천

일부 당원 '특정후보 지지' 국회의원 배제 주장

공천 과정 '지분나누기'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15일 공천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들이 옛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측 '5대5'로 구성되면서 향후 지방의원 공천과 재심 과정에서 양측의 세 대결이 예상되며, 공천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당원들과 광주시장 경선후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 국회의원 배제를 주장하고 나서 공심위 정상 운영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이날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천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 옛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측은 '5대5' 원칙에 따라 추천한 인사들로 공심위는 15명, 재심위는 9명으로 구성했다. <명단 참조>

옛 민주당 추천 인사로는 임내현 광주시당 위원장과 강기정·김동철·박해자·장병완 의원, 지미경 변호사, 이진 사무처장 등 7명이 포함됐다.

또 새정치연합 추천인사로는 김미경 광주대 교수, 김학봉 인재육성아카데미 이사, 노미덕 장애우권익문제 이사장, 송태중·신이선 전 시의원, 이현철 프라이개발 대표이사, 허달용 화가 등 7명이다. 김경신 전남대 교수는 공동추천했다. 재심위는 민주당 추천 4

명, 새정치연합 추천 4명, 공동추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공천과정에서 양 진영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며, 지분나누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원 19개 선거구에 이날 현재 110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전국 최고 경쟁률(5.5대1)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양 진영이 자신들의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5명의 구청장을 뽑는 구청장 선거에도 현재 단계가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26명이 등록해 5.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민주당과 새정치계 후보들의 신경전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의원은 지지 파문을 일으킨 국회의원들이 공심위에서 배제되지 않으면 경선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후보 지지로 지탄을 받는 광주 국회의원 5명이 광주시장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해 공천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을 공천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들이 공천심사



“윤장현 지지 국회의원들 사퇴하라”

15일 오후 광주시 서구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광주시당 공천심사위원회' 도중 일부 옛 민주당원들이 최근 윤장현 광주시장 지지선언을 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과정에서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시·구 의원 후보들까지 윤장현 후보 지지를 위해 줄 세우기 하려는 저의가 다분하다"며 "특정후보를 지지한 의원들을 공천관리위원장과 위원에 끼워넣은 것은 경선제도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광주시장 경선에서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

장현 후보 지지를 선언한 5명의 국회의원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모든 경선일정을 보이콧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당원 100여명도 광주시당을 방문해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임내현 시장위원장과 장병완 정책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일부 당원들은 '광주 국회의원들 5명은 신(新) 5적'이라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회의장에 진입하려다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윤장현 지지 파문'을 일으킨 5명의 국회의원 중 강기정·김동철·장병완 의원 등 3명은 이날 집행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달라진 野 세력지도... 호남출신 뜬다

천정배, 새정치연합 기초단체장 자격심사위원장 맡아

안대표 비서실장 문병호·수석 보좌관 서정성 등 활약

야권 통합 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호남 출신 인사들을 포함해 새로운 주도세력이 드러나는 등 야권 내 새로운 세력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천정배 문병호 서정성

우선 지난 2007년 정계개편 당시 '탈(脫) 열린우리당'을 내세워 탈당했던 그룹이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를 떠받치며 '신주류'로 급부상한 흐름이다.

이들 신주류가 기초선거 무(無)공천 파동과 개혁공천 논란 속에 당내 착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 대표의 든든한 우군으로 자리 잡으며 당내 친안(친안철수) 세력의 지변확대에 본격 나설지도 주목된다.

무엇보다 2007년 2월 선출 탈당그룹이었던 천정배 전 의원 주도의 '민생모'(민생정치모임)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당시 민생모는 민생과 개혁적 정체성을 내세워 천 전 의원을 비롯, 이종걸·우윤근·정선호·최재천 의원과 이계안·제종길 전 의원 등 17대 의원 7명을 초기 멤버로 해 꾸려졌다.

2012년 총선을 끝으로 정치 일선에서 떠났던 문병호 출신의 천 전 의원은 지난 13일 개혁공천의 칼자루를 권당 기초단체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며 중앙무대로 '귀환'했다. 그는 지난달 통합 직후 안 대표와 만나 당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선 7·30 재보선 출마설도 나온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윤장현 지지” 여진 지속

“지지” vs “반발”...지역사회 ‘몸살’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지지 의원들은 부적절한 지지가 아니었음을 연일 강변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대표 측 인사들은 추가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고 시민사회계에서는 반발 성명이 이어지는 등 신당의 광주시장 후보를 놓고 공정한 경쟁은 사라지고 지역사회가 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15일 의총에서 지지 선언 배경에 대해 “지방자치가 변해가고 거기에 맞는 후보를 발굴해서 광주가 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변하고 지방자치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해야 하는 사명, 광주 시민들의 높은 기대를 광주 국회의원들이 외면할 수 없고 당당히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부와 어떤 교감도 없었다”라고 덧붙이면서, “장차 반 하신 분들이 국회의원을 두세 번 하고, 끝나면 시장·도지사를 두세 번 하면서도 수평적 리더십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게 새정치인가”라며 강연대 현 시장과 이용섭 의원을 겨냥해 적절성 논란을 다시 일으켰다. 이에 의원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광주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지지선언을 놓고 찬반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가 잇따랐다.

안 대표 측 지방선거 출마자 100여명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춰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적극 지지해 보겠다고 밝혔다. “광주 야당 원로모임 50인 일동

이라고 소속을 밝힌 인사들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거듭난 구 민주당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라도 원로들은 국회의원 5인의 총정 어린 윤장현 후보 지지선언을 환영한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광주시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특정후보를 지지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은 시민들의 선택권과 공정한 경선구도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전남 시민포럼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진정 개혁을 명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생각이었다면 개혁의 1차 대상인 본인들부터 다음 총선 불출마를 먼저 선언해야 한다”며 지지 선언 의원들을 비판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구수자·부상자·유가족 등 5월 단체 관계자들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와 5·18정신을 모독한 지역 국회의원 5인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www.ggolffshow.com

Gwangju Golf Show

2014 광주 골프쇼

2014.4.17(목)~4.20(일)
오전 10시~오후 6시 /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품목

골프클럽, 시뮬레이션(스크린)골프시스템, 골프웨어, 공, 골프화, 연습기자재, 골프장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골프연습장 시공 및 설계, 골프관련 인터넷사이트, 악세서리 등 골프관련 산업 전반

입장료

- 일반 2000원
- 홈페이지 사전등록자, 저로자(65세 이상), 청소년(고교생 이하),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무료입장
- 사전등록 : 온라인등록시 무료입장 (홈페이지 참조)
- 등록기간 : 4월 16일(수)까지

부대행사

- 관람객 경품 이벤트
- 골프 바디피팅(숏피팅)
- 스크린골프 창업상담회
- 송경서 골프클럽 소속 프로 원포인트 레슨
- 관람객 장타대회
- 스윙피팅을 위한 골프메카닉 강의
- 트렉맨 스윙분석 레슨

참관객 경품

아이언세트,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퍼터, 골프우산, 캐디백, 골프화, 골프공, 그 외 다양한 골프용품

주최 | EX 후원 | 김대중컨벤션센터 | 광주광역시 | KPGA

광주 골프 쇼 | TEL 02-356-4309 | FAX 0505-356-4309
운영 사무국 | E-mail ibo3651554@nate.com